

화순적벽 버스투어, 내일부터 본격 운영

11월 30일까지 셔틀·투어 버스 2가지 형식 운영

(재)화순문화관광재단은 남도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화순적벽’ 일원을 여행할 수 있는 ‘2025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2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적벽은 동북면 상류 약 7km 구간에 걸쳐 형성된 절벽 지형으로, 물결적벽, 창랑적벽, 보산적벽, 장항적벽(노루목 적벽) 등 네 곳의 주요 적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519년 기묘사화로 유배 온 신재 최산두가 이곳의 풍광에 감탄하여 중국의 적벽보다 아름답다 하여 ‘적벽’이라 이름 지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품고 있다.

화순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방문객들은 반드시 안

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구역 외 출입은 금지된다.

2025년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셔틀버스’와 ‘투어버스’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화순적벽 셔틀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화 휴무) 운영한다.

매표 및 탑승 장소는 ▲화순온천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적벽초소 입구 세 곳이며, 각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1일 최대 7회까지 운행된다.

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만 운영되며, 화순읍 이용대체육관(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에서 출발한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영농철 현장 중심 기술지원 돌입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농가 직접 방문

함평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다.

함평군은 21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영농철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인 현장 지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영농현장 출장의 날’로 지정하고, 소속 직원 30명 전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술지원단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요령 ▲기상 재해 대응법 ▲수확 후 품질 유지 방법 등 작목별로 세분화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빈번해진 저온 피해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재해 예방 기술 안내와 함께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함평=지대만 기자

담양, 재가의료급여사업 관계자 간담회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계획

담양군은 지난 18일 재가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담양군 주민복지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력의료기관인 담양사랑병원 간호과장, 돌봄제공기관 믿음재가센터장, 식사제공기관 우미의 도시락 대표, 이동지원기관

담양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주민복지과 과장 및 팀장, 의료급여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담양읍사무소 사례관리담당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 수행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 수행 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서비스 간 연계 강화와 사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양=조승재 기자

담양에 주한 라오스 대사 방문… 계절근로 협력 강화

양 지역 간 우호 증진·지속적 교류방안 논의

담양군은 지난 18일 송간 무양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일행이 담양을 공식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는 특히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담양군과 라오스는 지난해 1월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107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담양에 입국해 근무 중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담양군이 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공급받은 사례로,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은 라오스의 최대 명절인 ‘뻬마이(신년 행사)’를 지역 라오스 근로자들과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월산면 라오스 근로자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숙소 및 근무 환경을 둘러보며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을 찾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근무를 마치고, 좋은 기억

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강성국 기자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내달 2~5일 열린다

각종 키조개 요리·문화체험·군민가요제 등 행사 다채

제22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수문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는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자란 장흥 키조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지리표시 수산물

제8호로 지정된 키조개를 활용한 장흥산합, 키조개 구이, 탕수육, 죽 등 다양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키조개 까기·썰기, 어린이 문화체험 등 체험행사와 키조개축제 군민가요제도 함께 진행된다.

키조개는 곡식의 꼭정이름 까불 때 쓰는 키(箕) 모양과 흡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鮫山魚譜)에는 키홍합이라 소개되었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감정 식품으로 애용해 온 키조개는 영양소가 많고 효능이 뛰어나다.

장흥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키조개 축제에 오셔서 키조개 요리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즐기면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광군의회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제대로 보상해야”

임시회서 정부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



영광군의회가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기소 군의원이 제출한 ‘인구정책 선도·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건의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 의원은 영광군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 조치 강화,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홀과 같은 양육 복합시설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선도·우수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청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장흥군은 22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청년 참여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창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은 총 10회(주 2회)구성으로, ▲지역자원조사 1회, ▲식음료 과정 3회, ▲체험·굿즈 과정 3회, ▲부스운영 과정 1회, ▲특강(스토리텔링) 1회, ▲선진지견학 1회로 진행된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올해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청년존에서 판매·홍보 부스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존은 작년 물축제에서 남만과 젊음이 가득한 특색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체험 부스 운영, 편의시설 확충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활력과 행복이 있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주최 장흥군

주관 장흥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흥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 5. 11. 장흥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 뮤직 페스티벌 5. 10.(토) | 나들이 5. 12.(월) - 5. 18.(일)